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복음선포

이성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독교 실천신학의 한 분야인 설교학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촉발된 세계사적 위기 속에서, 2021년 현재 한반도의 현실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간의 교류가 최소화되고, 심지어 극단적인 차단까지 감행되는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정부와 민간차원의 교류는 모두 중단된 것으로 여겨진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자국이기주의를 추구하게 한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현실은, 그리고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는 미국과 중국의 자국중심의 정치적 입장은, 한반도 평화 실현의 과제를 시급한 국제사회의 주된 의제로 채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평화를 진정성

* 감리교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

있게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설교와 설교신학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그 실현을 위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I. 설교자와 평화의 복음

기독교 신자들이나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설교학이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설교의 주된 기능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믿음과 윤리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 신자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는 일에 충실하면 되지, 굳이 거대한 담론인 한반도의 평화에까지 관심을 쓸 것은 없다고 조언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는 설교와 설교자가 평화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증거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이 중차대한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선포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¹⁾

설교는 하나님의 평화를 공포하는 복음의 선포이며,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하나님나라를 위한 사역 가운데 중심적인

1) Al Tizon, “Preaching for Shalom: Life and Peace,” *Asian Journal of Pentecostal Studies* 19:1(2016), 27.

역할을 감당한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사역을 “아름답다”고 노래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 52:7, 개역개정).

이사야의 예언을 근거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넘나드시며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발이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의 마지막 발걸음으로 세상에 완전한 평화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 그리고 그의 발은 로마제국의 군인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 임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그의 발을 아름다운 발로 축복한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눅 7:37-38).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되었음을 믿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발을 정성을 다해 축복했

다.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어 최고의 축복의 행동을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인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헌신하였다.”²⁾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을 위한 준비로 증거한다. 사람들이 이 여인이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셨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막 14:8).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해석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증거한다. 복음 전도자는 발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그의 생명까지도 복음의 제단에 부어야 한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이 복음의 제단에 부러지게 됨을 예고하였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빌 2:17, 개역개정).

아름다운 발로 기쁜 소식을 친히 증거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축복하셨다.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2) Chung Yong-Han, “The Weeping Women in the Asian Context a Postcolonial Feminist Reading of Luke 7:36-50,” 「장신논단」 50 (4): 2018.11, 89-90.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시며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다³⁾: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께 “주님, 당신이 나의 발을 씻으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요 13:7)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요 13:9)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이에 대답하시면서 자신이 그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를 설명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요 13:10, 개역개정).

여기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전함을 증거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모든 죄는 주님이 지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씻음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목욕한 자로서”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⁴⁾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로 그들의 “온몸이 깨끗함에도”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3) J. van der Watt, “The Meaning of Jesus Washing the Feet of His Disciples (John 13),” *Neotestamentica* 51.1 (2017), 34-37.

4) James D. G. Dunn, “The Washing of the Disciples’ Feet in John 13:1-20,”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und die Kunde der älteren Kirche* 61:3-4 (1970), 249-250.

첫째, 위생적인 목적일 수 있다. 영적으로는 온 몸이 깨끗하지만 위생적으로 육체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 영적인 목적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더라도 인간은 연약하여 죄에 영향을 받고 산다. 그래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함을 “발을 씻는 것으로” 가르치신 것이다.

셋째, 제자들의 소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발로 다니시면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셨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던 복음전파의 사역을 이어가야 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축복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사야 52:7의 예언대로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신 예수님의 발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게 될 제자들의 발을 아름답게 축복하신 것이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7을 인용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의 중요성을 명백하게 증거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4-15, 개역개정).

따라서 설교자들은 복음을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중차대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발은 아름답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 52:7).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명을 받은 설교자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을 정리를 해야 한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을 선포하는 거짓 설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글 성경에서 ‘복음’이란 단어는 신약성경 헬라어 “εὐαγγέλιον”의 번역인데, “εὖ(well, good)”와 “ἄγγελος(a messenger, angel)”의 합성어이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의 뿌리는 이사야 52:7에서 두 번 사용된 히브리어 “בָּשָׂר(basar)”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 52:7, 개역개정).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는 70인역에서는 “basar”를 “εὐαγγελίζω”로 번역되었는데, 그 의미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to announce good news)’이다. “εὐαγγέλιον”은 “εὐαγγελίζω”의 명사형으로 문자적으로 우리말로는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좋은 소식’으로 이해된다.

이사야 52:7은 복음의 질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좋은 소식은 곧 “*שָׁלוֹם*(peace)”, “평화”이다.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악한 제국과 그 제국의 통치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은 제국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백성에게 실로 ‘기쁜 소식’이며 ‘좋은 소식’이다.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악한 제국과 그 통치자들의 시대는 끝이 났기 때문이다.

II. 로마제국을 향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누가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 중에 누가는 이사야 52:7이 선포한 ‘평화의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것으로 보인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제국의 현실정치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는 로마의 황제와 총독과 지역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 실제 정치지형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기술한다.⁵⁾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호적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5) 이성민, “설교자의 누가복음 연구(1): 로마제국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신학과 세계』 2018년 12월, 369-370.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눅 2:1-2, 새번역).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열다섯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눅 3:1-2, 새번역).

누가는 그 자신이 로마제국의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제국의 기득층이 수용하기 어려운 복음을 증거한다. 성령은 누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제국의 “주님(*Κύριος*)”으로 선포할 것을 감동하신다. 로마제국에서 “주님”은 황제 시저(*Caesar*)에게 붙이는 칭호이다.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황제를 “주님”으로 언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제국의 “주님”으로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신다. 그리하여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는 예수님을 종교적 차원에서의 “구원자(*Σωτήρ*)”로만 소개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성격이 짙은 “그리스도 주님(*Χριστὸς Κύριος*)”으로 선포한다.⁶⁾

ὅτι ἐτέχθη ὑμῖν σήμερον Σωτήρ, ὃς ἐστὶν Χριστὸς Κύριος,
ἐν πόλει Δαυεί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6) 이성민, “설교자의 누가복음 연구(1): 로마제국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신학과 세계』 2018년 12월, 372-373.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눅 2:11, 새번역)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정치적 통치자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부르며 하늘의 평화를 기원한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 주님”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로마제국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는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임금님’이 되셨을 선포한다.”⁷⁾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Ὁ Βασιλεὺς ἐν ὀνόματι Κυρίου)!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눅 19:37-38, 새번역)

누가는 다분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주님”과 “임금님”으로 선포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정치적이란 예수님이 로마제국의 황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세속적인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과 “임금님”이란 호칭은 단순히 종교적인 칭호로 사용한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로마제국을 다스리시고 황제를 심판하시는 영원한 통치자라는 점에서, “주님”과 “임금님”이란 예수님의 칭호는 다분히 영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7) 이성민, 「설교자의 누가복음 연구(1): 로마제국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신학과 세계」 2018년 12월, 380.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로마제국과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이를 믿고 받아들이라고 누가는 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의 역사와 문화에서 새로운 하나의 종교체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누가는 로마제국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여러 신들 중의 하나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종교적 신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누가의 소명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이 그들에게 보내신 구원자로 믿었으니, 이제 로마 제국의 백성들도 종교의 차원에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로마제국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주님(Χριστός Κύριος)”이시다(눅 2:11).⁸⁾

III.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세례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한 신약성경의 주요 기자이다. 그는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로마제국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증거한다. 누가는 그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사도들의 전도행적을, 특히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로마제국의 심장부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는지 기술한다.

8) 이성민, “설교자의 누가복음 연구(1): 로마제국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신학과 세계』 2018년 12월, 377.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좌에 앉기 위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신다(행 1:4). 하늘 보좌에서 만국의 “주님”으로 로마제국을 공식적으로 통치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자신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에 제자들은 정치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행 1:6).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된 사건을 종교적 혹은 선교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누가로 하여금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의도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누가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정치적인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회복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직답을 피하시며,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권한으로 돌리신다(행 1:7).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민족적인 시각보다 훨씬 큰 세계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신다.

대부분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행전 1:8의 말씀을 ‘땅 끝에까지 가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적 사명의 선포로 이해한다. 이러한 선교적 시각에서 보면 1:8에서 “땅 끝에까지”라는 표현이 핵심적인 문구로 부각된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독교와 교회를 확장하고자 하는 교회의 입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라는 문구는 복음이 전해지게 될 지역들을 나열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제국의 심장부와 제국의 변두리 끝자락에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주님”의 의도는, “예루살렘”이나 심지어 “땅 끝”이 아니다. 본문의 핵심은 로마제국의 전 지역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데 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로마제국의 전역에 가서 증거하라는 것이다. 곧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의 선교적 차원을 넘어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자와 관련된 세계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주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은 바람의 소리로 다락방을 가득 채웠고, 불로 각 사람의 위에 임했다.

-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1-4).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사건을 해석할 때에 일반적으로 “다른 방언으로(새번역)” 말하게 되었다는 ‘방언사건’을 강조한다. 방언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열에서뿐만 아니라 방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본문을 방언사건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혹은 성령의 은사를 중요시 여기는 성경해석자라면, 이 본문에서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하신 것을 지목하면서, 성령의 신비한 임재에 대한 경험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로마제국과 만국을 통치하는 하나님나라의 군대가 세워진 사건이다. 물론 이들에게 주어진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다. 제자들은 땅의 황제가 거느리는 군사들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세상의 무기로 무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무기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 대신,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롬 8:6)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⁹⁾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 세계에 다니며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되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은 사도행전

9) Al Tizon, “Preaching for Shalom: Life and Peace,” *Asian Journal of Pentecostal Studies* 19:1 (2016), 26.

2장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사건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며(겔 37:11),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였고,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겔 37:10).

본문에서 “생기(breath)”는 spirit(영), wind(바람), breath(호흡)으로 해석되는 히브리어 “רוח(ruah)”의 번역이다. 대부분의 한 글과 영어성경은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 속으로 들어간 “רוח(ruah)”를 “생기”와 “breath”로 번역하였지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과 연관시켜 볼 때에, “영(spirit)”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바람이 들어간다고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오순절 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음을 증거할 때에, 중심 절은 마지막 4절로 보아야 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4절을 이해할 때에 “다른 방언들(표준새번역)”과 “다른 언어들(개역개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방언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이 여전히 강세에 있는 상황에서, 4절에서 “다른 방언들”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방언”은 모든 종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신비체험이다. 물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방언”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한다.

사실 다락방의 언어 사건은 종교적 신비체험으로서의 이상한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방언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당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언어들을 구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행 2:6-12).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라고 표현한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더 현실적인 묘사로 여겨진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당시 실제로 사용하던 “다른 언어들”을 받아 사용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비한 일이다.

사도행전 2:4에서 핵심 문구는 “다른 방언들”이나 “다른 언어들”이라기보다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다. 방언이나 다른 언어를 구사한 것이 신기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본문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라는 점이다.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말로 선포하게 되었다.

IV. 베드로의 복음선포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로마제국의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였다. 사도행전 1:8의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예고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직 제자들은 “땅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땅 끝에” 살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은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땅 끝에서”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인가? 누가는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을 대표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제국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누가는 역사적인 베드로의 복음선포를 2:14-36에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 설교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그날에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한 사도의 첫 복음선포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의 원형(the prototype of preaching)”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로서 그의 첫 설교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복음을 선포하였다:

- 1)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대한 변론 (2:14-21)
- 2)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 (2:22-32)
- 3)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 (2:33-36)

그는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행 2:13)”고 비난하는 것에 대한 변론으로 설교를 시작한다. 요엘서 2장 28-32절을

인용하면서, “새 술”이 아니라 요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것임을 증거했다.

이어서 그는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여기에서는 시편 16편 8-11절을 선포하면서, 다윗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시 16:10)” 하셨다고 증언한다. 유대인들이 “법 없는” 로마제국의 총독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베드로는 증언한다(행 2:23-24).

베드로의 복음선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멈추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얻게 된 ‘참으로 기쁜 소식을’, 로마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복된 소식’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33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습니다.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행 2:33-36, 새번역).

베드로는 34절에서 시편 110:1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게 하셨다고 선포하였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부활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음을 증언하였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36절).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로마제국을 향한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멈추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유대교 전통에서 예수님을 종교적 메시아로만 강조했다면,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언하면 되었다. 그러나 성령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만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증언하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 110:1의 예언에 따라, 로마제국을 통치하는 “주님”으로서, 로마제국과 유대민족의 정치적 원수들을 그의 발아래 굴복시키실 것임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다.

V.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복음의 선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 받았고 로마제국의 통치자에 의해서 처형되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빌 2:6)”시며, “그 본체의 형상(히 1:3)”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었다(마 8:20).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제국의 총독을 정치적으로 압박했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로마제국의 법을 불법적으로 적용하는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 예수님은

민족주의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제국의 통치자의 손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살리셨다. 살리셔야만 했다. 그리고 원수들의 악행에 대하여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알리셨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시편 110:1은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을 맡기신 것을 분명히 증거한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시 110:1).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 후에야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곧 평화는 불의를 방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 내려온다.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왕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일본제국이 한반도를 침략하고 폭력적으로 우리 민족을 통치하면서부터 한반도에는 여러 왕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서 악행을 저질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악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한반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신 예수님의 편에서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원수인 땅의 왕들의 편에서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인지도 모른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 통치자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이념과 정치적 지향에 따라, 자신의 주를 세워놓고 그 주가 통치자가 되기를, 혹은 그 주의 계승자가 계속 한반도를 통치하기를 바라고, 돕고, 그 주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한다. 여기에는 좌나 우, 진보나 보수 모두 자유롭지 못한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세워 왔던 땅의 주들을 위상으로 규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웠고 세우려고 했던 왕들과 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은 부활하시어 하늘의 보좌에 앉아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

오늘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심판을 증거한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복음이다. 누가 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참고문헌

- 이성민. “설교자의 누가복음 연구(1): 로마제국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신학과 세계』 2018년 12월.
- Al Tizon, “Preaching for Shalom: Life and Peace.” *Asian Journal of Pentecostal Studies* 19:1(2016). 27.
- Chung Yong-Han. “The Weeping Women in the Asian Context a Postcolonial Feminist Reading of Luke 7:36-50.” 『장신논단』 50 (4): 2018.11. 89-90.
- J. van der Watt. “The Meaning of Jesus Washing the Feet of His Disciples (John 13).” *Neotestamentica* 51.1 (2017). 34-37.
- James D. G. Dunn. “The Washing of the Disciples’ Feet in John 13:1-20.”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und die Kunde der älteren Kirche* 61:3-4 (1970). 249-250.